아카루트 2020년
해외논문번역지원사업

재일조선인 여성으로서 함께해 온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

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運動のいま
:在日朝鮮人女性の視座から

저자 | 방청자(方清子)
번역 | 장수희 (동아대 한국어문학과)

▶이 논문 번역은 [아카루트 2020년 해외논문번역지원사업]의 결과물로 저작권은 아카루트에 있습니다.
인용하실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세요.

DBpia × 아카루트

재일조선인 여성으로서 함께해 온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1)]
(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運動のいま：在日朝鮮人女性の視座から)

방청자(方清子)

*번역: 장수희 (동아대 한국어문학과)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일본이라는 국가가 전시에 아시아-태평양 일대의 여성들을 성노예로 만들었다는 역사적 사실이다.

전후 일본 정부는 이 사실을 계속 은폐했다. 그러나 많은 피해자가 증언을 했고 관련 자료가 발굴되어 진상이 밝혀진 지금도 일본은 국가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역사를 부정하며 피해자의 존엄을 침해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내가 재일조선인 여성으로서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여해 온 체험을 중심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운동의 궤적을 더듬어 보고, 어떠한 해결이 되어야하는지, 지금까지의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한다. 내가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대하는 시각이 변화하게 되었던 몇 번의 전환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보편적인 여성에 대한 전시성폭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게 되고 국제사회의 공통 이슈가 되어 가는 과정과도 결부되어 있다.

내가 나이기 위해

태어났을 때부터 일본 이름을 가지고 일본 학교에 다니고, 집 안에서든 밖에서든 일본인으로 행동하는 것이 당연했다. 많은 재일조선인들이 그런 것처럼 나도 차별과 이지메를 당하게 되면서 내가 재일조선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노골적이고 불합리한 차별과 폭력의 의미를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고, 조선인으로 태어난 내가 나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그런 나를 버티게 해 준 것은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만 살면 언젠가 이 사회가 나를 받아들여 줄 것이라는 주위 어른들의 말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사회에 나왔을 때 나를

1) 이 번역은 方清子,「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運動のいま : 在日朝鮮人女性の視座から」,『抗路=항로』, 抗路舎, 2015년 9월호, 80-90쪽을 옮긴 것이다.(이후 모든 각주는 옮긴이 주이다.)

DBpia × 아카루트

받아들여주는 기업은 어디에도 없었다. 고등학교 졸업 전에 이미 사는 의미를 알 수 없게 되었고 삶의 목표를 잃는 좌절을 경험했다. 겨우겨우 작은 동포기업에 취직한 후, 민족의 언어를 배우려고 민족단체의 문을 두드렸다.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1970년대 초반의 재일동포 사회는 전후에 태어난 자이니치(在日) 2세가 증가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 자이니치 2세들의 고뇌가 표출되는 듯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었다. 1970년 일본 국적을 가진 양정명(山村政明)이 자신이 다니고 있던 와세다 대학에서 분신자살을 시도[2]했고, 1973년에는 가와사키에서 박종석씨의 히타치 취업차별 사건[3]이 일어났다. 그리고 1968년에는 시즈오카에서 김희로 사건[4]이 일어났었다.

민족단체를 몇 년 동안 다니면서 겨우 내 뿌리를 받아들이고 재일조선인으로 살겠다는 각오가 생겼다. 그 후에는 민족을 부정하며 살아왔던 일을 후회하고 조선인으로 당당하게 살며, 민족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생각으로 민족운동에 몰두했다. 그 당시 민족운동, 반독재운동, 통일운동에 투신하는 일은 조국왕래의 길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했다. 독재정권에 대한 반정부 운동에 한국 정부는 운동을 하는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여권발행 거부로 탄압했다. 그러나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이라는 대의 앞에 개인적 욕망이나 원망 따위 하잘 것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사명감에 불탔었다. 한 번도 발을 디딘 적 없고 말도 문화도 제대로 모르는 '조국'은 지극히 관념적인 것이었지만 김지하의 시를 읽고, 동지들과 투쟁가를 부르고, '민주화.통일'을 외칠 때, 마치 마른 땅에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마음이 흔들렸다. 사회의 차별과 편견,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바로 그것이 내게는 '민족적으로 사는' 것이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만나다

20여년의 세월이 지나 1997년에 조직 내부에서 '자이니치 여성운동'을 시작했다. 당시 한국에서는 민주화로 여성해방운동이 시대의 추세가 되어 있었다. 그때까지처럼 남성중심 민주화운동의 종속물로서의 여성해방이 아니라, 주체성을 가진 '양쪽의 날개로 나는 민주

2) 1970년 10월 6일 재일조선인 차별에 저항하며 양정명이 분신자살한 사건. 재일조선인에 대해 차별적인 일본 사회, 귀화에 대한 재일동포 사회의 부정적 인식 등 갈등과 배제의 다양한 모순들이 뒤섞였던 당시 재일조선인들의 삶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양정명이 분신한 다음해 1971년에 유고집『목숨 다 타버려도(いのち燃えつきるとき)』(大和出版, 1971)가 출판되었다(『세계한민족문화대전』[http://www.okpedia.kr] 참조).

3) 1970년 일본 히타치 제작소의 입사 시험에 합격했으나 호적 등본 제출 과정에서 재일조선인임을 알게된 히타치 측이 "외국인은 고용할 수 없다"며 채용을 취소했다. 이에 박종석은 고소를 제기했고 재판은 1970년 12월에 시작되어 1974년 6월 승소하였다. 지방법원의 판결문에는 박종석이 이력서 등에 '아라이 쇼지(新井鐘司)라는 통명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 이해를 표시하고 국적에 의한 차별이라고 인정했다. 이 판결은 민족차별철폐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박종석은 히타치에서 37년간 근무하고 2011년 정년퇴직 하였다(『세계한민족문화대전』 참조;「일본을 바꾼 '히타치 투쟁'-박종석씨 정년」, 재일본대한민국민단 홈페이지[https://www.mindan.org/old/kr/front/newsDetail6a72.html] 참조). 2020년에는 '박종석 군을 지원하는 모임'을 만들어 소송을 주도했던 인권운동가 최승구의 책『변화를 일궈온 이방인』(동연출판사, 2020)이 출간되었다.

4) 1968년 2월 20일 재일조선인 김희로가 폭력 단원 2명을 총으로 사살한 사건이다. 사건 직후 스마타교 온천으로 도주하여 여관에서 경찰과 대치하다가 체포되었다. 김희로는 재판에서 "조선인에 대한 민족 차별을 빼고는 사건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일본의 민족차별에 대해 호소했다. 이 사건은 한국에도 크게 보도되어 재일동포의 상황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사건의 배경과 경위에 대해 김희로 공판 대책위원회(金嬉老公判對策委員會)에서『김희로 문제 자료 집성(金嬉老問題資料集成) 상·하』(むくげ舎, 1982)를 간행했다. 그는 1999년 9월 구속된 지 31년만에 석방되어 한국으로 귀국한다. 쓴 책으로『어머니, 미움을 넘어섰어요』(랜덤하우스코리아, 1999)가 있다(『세계한민족문화대전』 참조).

DBpia × 아카루트

화 운동'을 목표로 하는 한국여성운동,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상부 조직과의 균형, 젠더 인식과 내셔널리즘 사이에서 치열하게 갈등하고 있을 때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불쑥 다가왔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여성에 대한 차별.인권침해인 동시에 식민지 지배 하에서 우리 민족에게 행해진 비열한 민족말살정책이었고, 우리가 선두에 서서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민족이 짊어진 역사의 일부임에 틀림없었다.

『한겨레 신문』에 게재된 윤정옥 씨의 르포를 번역하고, 강연록과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자료집 『은폐된 역사에 지금이야말로 빛을! 조선인 종군위안부』를 발간했다. 그리고 수개월 후 1991년 8월 김학순 씨가 전후 50년의 침묵을 깨고 일본군'위안부'였음을 증언했다. 이 일이 사회에 준 충격은 끝을 알 수 없을 정도였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전시성폭력 근절을 위한 투쟁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민족단체의 역사학습 시간에 처음으로 '종군위안부'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다. 이제 갓 20살이 지났을 때였다. 학습을 담당했던 여성 동료가 도중부터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다. 봐서는 안 될 것을 봐버린 기분이었다. 나는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마음속에 거리를 두고 냉정해지려 했다. 그때부터 20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김학순 씨가 증언을 하고나서 2달 후 10월에는 전후 일본군에 의해 오키나와에 내버려진 구 조선인 일본군'위안부' 배봉기 할머니의 부고가 도착한다. 전후 오키나와 땅에서 상상조차 불가능한 고독과 고통을 안고 살아온 배봉기 할머니의 추도회를 오사카에서 열기 위해 교직원조합과 노동조합 여성부 등 여기저기 뛰어다녔더니 즉각 반응이 왔다. 추도회에는 많은 시민들이 몰려와 복도까지 사람이 넘쳐났다.

일 년 후에는 역사의 검증을 주제로 자료집 제2집 『진실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며-조선인종군위안부』를 발간하고 이어서 제3집도 발간했다. 작은 평화운동 모임과 학교, 노조 등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 운동에 연대를 하겠다고 하면 어디든 뛰어다니며 강연과 집회를 했다.

같은 시기에 기존의 민족조직과는 분명히 선을 긋고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을 시작한 자이니치 여성들도 있었다. 도쿄에서는 '종군위안부문제 우리여성 네트워크'가, 간사이에서는 '조선인종군위안부를 생각하는 모임'이 조사와 증언 청취 등의 실천을 통해 일본에서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을 견인했다. 이들은 재일동포 사회와 민족조직의 남성중심주의에 대해 비판적이고 젠더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모임이었다.

최초의 조국방문

1992년 8월 서울에서 제1회 아시아 연대회의가 개최된다고 해서 어떻게든 참가하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었다. 그때까지 느낀 적이 없었던 괴로움과 슬픔을 느꼈다. 대표를 보내려고 해도 같이 운동을 하는 동료들 중 누구 하나 여권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아시아 연대회의에 참가할 수 없으면 운동을 하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조차 들었다. 1995년 3월 제3회 아시아 연대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는데 여전히 여권도 없고 갈 가능성도 없었지만 참가희망 명부를 보냈다.

그 즈음 한국은 군사정권에서 문민정권으로 바뀌어 김대중 대통령 시대였지만 아직 국가보안법이 활개를 치고 있었다. 옛날처럼 재일한국인 간첩사건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일본 유학중 반국가단체와의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김삼석 남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 중이었다. 나는 간사이에서 김삼석 남매 구원운동을 하면서 가족

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격려 편지를 받아든 김삼석 씨의 부인, 윤미향 씨로부터 답신이 왔다. 답신에는 편지를 보내준 방선생님과 아시아 연대회의에 참가 신청을 한 방선생님이 같은 사람인지 묻고 있었다. 그녀는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중심 멤버였다. 나는 참가신청은 했지만 여권이 없다고 했는데, 한국 쪽에서 통일부와 담판을 하는 등 노력을 할 테니 이쪽도 임시 여권을 신청해 참가할 수 있도록 시도해 보자고 했다. 오랫동안 민족운동을 하면서 조국과 동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항상 생각해왔지만, 조국이 혹은 동포가 나를 위해 무언가 해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해 봤다. 그가 나를 위해 노력한다고 해서 마음이 따뜻해졌다. 포기하고 있었던 내 마음에 다시 조국방문과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향한 새로운 걸음을 내딛을 결의가 깃들었다.

몇 주 후 임시 여권을 손에 들고 조국방문의 길에 오를 수 있었다. 긴장해서 일본인 친구에게 보호받으면서 입국심사를 무사히 통과했을 때는 진이 다 빠졌다. 민주화 투쟁으로 만났던 한국 친구들이 공항에 마중 나와 주었다. 아시아연대회의에서는 특별히 나에게 발언 시간이 주어졌다. 식민지 종주국인 일본에서 살고 있는 재일동포들이 겪어 온 고난의 역사와 재일동포 사회 속에서 실감하는 남북분단의 현실, 그 벽을 넘어 남북과 재외동포가 함께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에 매진해야 할 때임을 호소했다.

'국민기금'에서 여성국제전범법정으로

한국에 다녀온 후 일본 시민운동 동지들과 함께 한국과 필리핀 피해자들을 초청하여 증언집회를 하는 등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호소하며 활동을 계속했다. 1996년 4월 쿠마라스와미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은 일본군'위안부'를 '군사적 성노예'라고 명시하고,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권고를 했다. 이를 계기로 시민운동이나 전일본자치단체노조를 비롯한 노동조합과 부락해방동맹 등이 모여 대규모의 '쿠마라스와미 권고 환영 집회'를 준비해서 개최했다. 큰 보람을 느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94년의 자민당.사회당.사키가케 삼당 연립으로 만들어진 무라야마 정권은 전후 50년 문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하고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이후 '국민기금')을 설립했다. 이후 국민기금에 협력을 결정한 노조나 기존의 조직들과, 국민기금이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위로금임을 비판하며 정부의 국가배상을 요구하는 시민운동 사이에는 입장 차이가 생겼고, 이 간극은 메워지지 않은 채 대립은 심화되었다. 개인적으로도 국민기금 반대 운동을 거치면서 그때까지 한일연대운동을 하면서 만나온 일본 친구들과의 인연이 끊어져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싸워 온 동지들을 잃는 괴로움을 겪었다. 국민기금 직전까지 연대운동이 왕성했던 일이 거짓말 같이 느껴져 운동의 날개를 꺾이는 듯한 무력감도 느꼈다. 그렇지만 그렇기때문이야말로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와 배상을 하라고 요구하는 운동을 멈출 수가 없었다.

몇 년 후 2000년 12월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이 없는 21세기를 목표로 일본군성노예제를 심판하는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이후 '여성국제전범법정')이 도쿄에서 개최되었다. 1991년 이후 많은 피해자가 증언을 하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 당시 9건의 재판 중 6건의 재판이 패소 확정되어 있었다. 여성국제전범법정은 일본의 전쟁 책임을 묻고 피해자 중심의 정의 회복을 목표로 하였다. 이는 당시에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등 각국의 전쟁터와 무력분쟁이 발생한 지역에서 일본군'위안부'와 똑같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반복되고 있음을 새롭게 조명하고, 국제법이 가진 한계와 젠더

DBpia × 아카루트

편견을 지적하는 한편 시정하려는 도전이기도 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식민지 지배하의 조선 반도에서 일어난 인종차별적 성폭력이라는 협소한 시점으로만 파악하고 있었던 나에게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한국, 북조선을 비롯해 중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등에서 64명의 피해자가 여성국제전범법정에 참가하여 증언대에 섰다. 피해의 상황은 놀라울 정도로 다양했고 어느 것이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잔학하며 참혹한 것이었다. 한국과 북조선의 검사단이 남북공동기소장을 작성했던 일도 획기적이었다.

1년 후 2001년 12월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여성국제전범법정의 판결이 나왔다. 일본의 국가 책임을 인정하여 일왕을 비롯한 책임자는 유죄이며 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판결이었다. 여성국제전범법정은 피해자들이 원하는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의 존엄 회복에 큰 역할을 했다. 또한 여성국제전범법정은 일본인'위안부'의 가시화로 '공창제도'도 역시 군국주의적 성노예제도와 다르지 않으며, 빈곤층과 무산계급의 여성들이 희생되었다는 것, 그 연장선상에 일본군'위안부' 제도가 실시되었음을 명확히 했다. 일본 군국주의의 아시아 침략과 식민지 지배, 그리고 시대와 지역을 초월한 여성차별의 연속성 속에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전 세계의 언론 매체가 여성국제전범법정에 주목하고 있었지만 일본의 언론은 침묵했다. 법정의 준비 단계부터 동행취재를 하고 있었던 NHK가 2001년 1월 30일, 'ETV2001' 프로그램의 <전시성폭력을 묻다>로 여성국제전범법정을 다루었다. 그러나 방송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것이었다. 많은 피해 증언이 삭제되거나 날조되었고 여성국제전범법정을 비판하고 부정하는 방송이 되어 있었다. 배후에 아베신조 관방부장관(당시) 등 정치가들의 압력으로 방송이 조작되었다는 것이 알려져 법정을 주최했던 VAWW-NET제팬[5]은 NHK를 제소하고 재판투쟁에 돌입했다. 일본군'위안부'라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의원들은 애당초 있었지만, 이 즈음부터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격, 역사인식과 교과서 기술에 대한 백래쉬가 격렬하게 증가했다.

국제사회로 확산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일본 내부의 백래쉬

일본 국내에서 역사수정주의가 확산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전시성폭력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다. 1998년에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이은 게이 J 맥두걸(Gay McDougall) 유엔 특별보고관의 「무력분쟁하의 강간, 성노예제」라는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일본 정부의 행위를 '인도에 반하는 죄'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에 책임자 소추,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1994년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를 시작으로, 자유권위원회, 사회권위원회, 고문금지위원회 등의 유엔인권기관에서는 일본 정부에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는 권고를 거듭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2007년 7월 미국 의회도 '일본 정부는 명료하고 모호함 없는 형태로 공식적 승인을 하고, 사죄를 하며, 역사적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때까지 제출과 폐안을 계속해온 결의안이 이 때 만장일치로 결의된 데에는 당시 아베 수상이 일본군'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일본 국회의원들이 『워싱턴 포스트』에 일본군'위안부'를 부정하는 광고를 게재했던 사건이

5) 전쟁과 여성 폭력에 대한 네트워크(Violence Against Women in War Network). 초대 대표는 마츠이 야요리(松井やより). 2011년에 '전쟁과 여성 폭력에 대한 리서치·액션·센터'(Violence Against Women in War Research Action Center, 통칭 'VAWW RAC', 홈페이지[http://vawwrac.org])로 변경.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을 운영하고 있다.

DBpia × 아카루트

영향을 주었다. 이 해에 일본군'위안부' 의회 결의는 네덜란드(11월), 캐나다(11월), 유럽의회(12월)로 파급되었다.

다음 해인 2008년 8월 간사이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전후 보상 문제에 관여해 온 단체와 시민을 중심으로 미의회 결의 1주년을 기념해 미국 시민운동가인 애너벨 박(Annabel Park)과 유럽의회 결의를 끌어낸 엠네스티 국제사무소 캐서린 바라클라우(Katherine Barraclough)를 초대해 간사이 포럼 "일본군'위안부' 결의에 따라 지금이야말로 해결을!"을 개최했다.

필리핀에서 참가한 롤라[6] 필라 프리아스(Pilar Frias)는 16살 때 일본 군인에게 얼굴을 칼로 찔려 피가 많이 나는데도 나무에 묶여서 두 사람의 일본 군인에게 강간당했던 괴로운 체험을 증언해 주었다. 애너벨은 미국에서의 의회결의를 위한 풀뿌리 운동은 어렵고 힘든 것이었다고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는데, 결의를 이끌어 냈을 때의 기쁨을 이야기할 때도 역시 눈물을 훔쳤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다음은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어떻게 일본 정부를 움직여서 사죄와 보상을 쟁취할 것인지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이 때 우리는 바통을 넘겨받았다. 이제 전력을 다해 돌진할 수밖에 없었다.

간사이 포럼 준비가 한창일 때 동료들의 노력으로 효고현 타카라즈카시(宝塚市)의회가 일본에서는 최초로 일본 정부의 성실한 대응을 요구하는 일본군'위안부' 의견서를 가결했다. 바로 일본에서 내 눈앞에서 이루어 낸 운동의 성과였다. 이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간사이 포럼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정보교환과 의회에 대한 로비활동 등 단단한 연대를 만들어 갔다. 이러한 활동 속에서 2009년 6월 일본군'위안부 문제 간사이 네트워크가 설립되었다. 그 후 의회의 의견서 가결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간사이에서도 오사카, 교토를 비롯한 각지에서 의견서가 가결되었다.

2009년 9월에 일본은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일본군'위안부'문제가 더욱 활발히 논의되기를 기대했다. 왜냐하면 2001년 이후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법적 해결을 목표로 한 초당파(超党派) 의원들이 「전시 성적 강제 피해자 문제 해결 촉진 법안」을 8번이나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 중심적 역할을 한 것이 민주당이었기 때문이다. 2010년 2월 전국의 동지들이 도쿄에 모여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전국행동 2010"(이후 '전국행동')을 개최했다. 이후 2년간에 걸쳐 서명운동과 로비 활동, 원내집회 등 온갖 운동 전략을 실행했지만, 민주당 정권 하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보지 못하고 다시 아베정권이 등장하게 되었다.

간사이 네트워크의 활동과 재특회

간사이 네트워크는 각 지방의회에서의 의견서 가결 운동부터, 전국행동과 연계해 의원에 대한 로비 활동과 피해자 증언집회 기획, 서울 일본 대사관 앞에서 개최되는 수요집회에 연대해 2006년부터 시작된 오사카역 앞 수요데모 주관 등 시민들에게 가깝고 접근하기 쉬운 운동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아베정권으로 정권이 다시 교체되었고, 그 와중에 백래쉬는 한층 심해졌다.

'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이후 '재특회')이 처음으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09년 11월 한국에서 강일출 할머니를 초대해 증언집회를 개최한 날이었다. 그들은 집회장 주변에서 일장기와 욱일기를 들고 큰 음량의 스피커로 소리를 지르며 방해행동을 했다.

---

6) Lola는 타갈로그어로 할머니라는 뜻.

DBpia × 아카루트

“여러분, 종군위안부 따위 거짓말입니다. 단지 돈을 벌려고 하는 매춘부입니다.”, “할아버지들을 강간마로 만들어도 좋습니까”, “강제연행 따위 없었습니다!”

그들의 집요한 방해는 집회.학습회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계속되었다. 여러 명이 집회 장소를 찾아와 집회 장소 앞이나 접수대 근처에서 “집어 치워”, “조센징!”, “매춘부!” 등의 욕설을 퍼부었다. 눈앞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악담에 때로는 기운이 빠졌다.

2011년 7월 김학순 씨의 증언 20년째를 맞이해 윤미향 씨가 일본에 와서 함께 했던 집회 때는 집회 장소 맞은편 연수실을 우리와 같은 시간대에 그들이 빌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집회 장소에 몇 번이나 가서 대책을 세웠다. 집회 준비보다 ‘재특회’ 대책에 골몰했다. 수요데모 때 육교 위에서 여러 명의 남자들에게 쫓기기도 했는데, 그들은 주위에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조센징 자식!”, “네놈들 허가 받은 거야?”라고 말하면서 집요하게 따라붙었고 그 일 바로 직후에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비열한 공격을 했다. 2011년 12월 밤 오기마치 공원(扇町公園)에서 개최된 1000회 촛불콘서트를 한창 준비 중일 때 그들은 패거리를 만들어 와 눈앞에서 “조센징!”을 연호하고, “총코, 총코”라고 노래하기 시작했다. 그 때 경찰관들은 그들이 폭력적 행위를 하지 않는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이미 혐오표현이 우리 마음 깊이 상처를 남겼다는 것을 알 턱이 없었다.

아무리 재특회가 기승을 부려도 공인이 혐오발화를 당당하게 입 밖으로 낼 수 있다고는 생각해보지도 못했다. 2012년 8월 하시모토 도루 당시 오사카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강제연행의 증거는 없다”, “민간업자에 의한 인신매매나 유괴”, “다른 나라도 다 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다. 우리는 즉각 항의했다. 한국에서 김복동 할머니가 일본으로 오셔서 ‘내가 증거’라며 시청을 방문해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하시모토 시장은 출근도 하지 않고 면담을 거절해 버렸다. 그 때 개최한 김복동 할머니의 증언집회에서는 집회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재특회를 증언집회 지원자들이 되돌아가게 한 일이 있었는데, 5개월 후에 그 일로 갑자기 경찰이 찾아왔다. 재특회가 고소를 해서 ‘혐의자’로 지목된 증언집회 지원자의 집과 사무소, 간사이 네트워크 관련 장소를 가택수사 당했다. 너무나도 노골적인 권력의 개입과 부당한 탄압에 할 말을 잃었다. 즉각 재판소와 경찰에 항의문을 보내고 항의 기자회견도 했는데, 반복되는 재특회의 방해와 이에 편승하는 듯한 경찰 권력의 행위를 용납할 수가 없어 분노와 눈물의 기자회견이 되었다.

그 후 하시모토 시장은 2013년 5월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반복하며 기자회견을 했다.

“(전쟁터에서 군인에게 휴식을 주려면) 위안부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 안다”, “오키나와의 미군 사령관에게 좀 더 성매매를 활용하도록 권했다.” 등 여성의 인권은커녕 인간의 존엄을 경시하고 피해자를 가지고 노는 도를 넘은 발언에 국내외에서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비난을 계속 받아 사태가 심각해지자 하시모토 시장은 외국 특파원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련의 발언을 사죄했다. 그러나 여기서도 “일본 정부나 군의 조직적인 여성 납치, 인신매매의 증거는 없다”며 지론을 주장했다. 이러한 하시모토 시장의 혐오발화에 탄력을 받은 것처럼 일본군‘위안부’ 문제라는 역사를 부정하고 여성의 존엄을 짓밟는 악의에 찬 혐오발화는 국회의원을 비롯해 NHK 회장까지 확산되었다.

아베정권의 역사부정

일본 정부는 1992년 미야자와 정권 때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두 차례 조사하고,

1993년에는 「고노 담화」를 발표하여 불충분하지만 위안소의 설치, 관리, 이송에 군이 직접 관여했음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의 고통스러운 것이었다"며 "군의 관여 하에 많은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심각하게 훼손한 문제"라는 것도 인정했다. 이것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그러나 아베 수상은 1997년 '일본의 앞날과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의 모임'을 결성할 때 「고노담화」의 재검토를 요구했는데 그 생각은 2015년 현재에도 변함이 없는 듯하다.[7)]

제1차 아베정권 시기이던 2007년에 아베 수상이"공권력이 집에 강제로 들어와서 유괴범처럼 끌고 가는 강제성은 없었다."고 말해 국내외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그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부시 대통령에게 이 발언을 사죄했는데 왜 미국 대통령에게 사죄한 것일까. 게다가 같은 해 3월에는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는 군과 관헌의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듯한 기록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각의결정(閣議決定)도 했다. 그리고 제2차 아베정권 취임 직후인 2012년 12월 인터뷰에서는 「고노담화」를 재검토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아베담화」를 발표하겠다고 해 각국의 언론매체로부터 '극우정권'으로 보도된 이후 이 말은 삼가고 있다. 그러나 2014년 6월에 「고노담화」의 성립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검증'을 진행했다. 검증 결과 특별히 뭔가 나온 것도 아닌데, 애초에 이 검증 자체가 「고노담화」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였다고 생각한다.

2014년 8월에는 『아사히 신문』이 이전에 게재했던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기사를 '허위'라며 철회했다. 요시다 세이지는 아시아태평양 전쟁 시기 제주에서 여성들을 폭력적으로 그러모았다고 했었는데 이 기사철회로 일본 사회에서는 아사히 신문 때리기와 일본군'위안부'라는 역사적 사실 그 자체를 부정하는 분위기가 소용돌이 쳤다. 대기업 신문사까지 아사히 때리기에 뛰어들고, 우파 세력이 압박해서 각지의 의회에서는 "아사히의 허위보도에 의해 일본의 명예가 상처입었다"며 정부의 대응을 요구하는 의견서가 나왔다. 그 동안 아베 수상은 국회와 방송을 통해서, "이 오보로 많은 사람이 상처, 슬픔, 고통, 분노를 느끼고 일본의 이미지는 크게 상처를 입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일본이 국가적으로 (여성을) 성노예로 만들었다는 근거 없는 중상모략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계속 발언해 여론을 오도했다. 이는 강제연행의 유무로 논의의 초점을 본질에서 멀어지게 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부정하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

전후 70년,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향해

일본 정부는 번번이 '인도적 견지에서'라거나 '도의적인 책임'을 입에 올리는데 이러한 표현은 가해자나 가해국이 사용할 표현이 아니고 피해자도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다. 전국행동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마땅한 해결을 목표로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해결'이란 무엇인지, '법적 해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명확히 하기 위해 2012년 한국과 일본의 변호사, 연구자들과 함께 '한일TF(테스크포스)회의'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였다.

한편, 2011년에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의 부작위를 위헌이라고 판결한 이후 한국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에 대화

7) 아베 수상의 「전후 70주년 담화」는 2015년 8월 14일에 발표되었다. 일본의 전쟁책임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무라야마 담화'보다 크게 후퇴한 역사인식을 보여주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아베 담화에 대해 "반성과 거리가 먼 자기합리화"라 비판한 바 있다(최우리·방준호, 「아베 담화 '유체이탈 사과'…"대한민국에 총체적 모욕"」, 『한겨레』, 2015. 8. 14. 참조).

를 요구해왔지만 일본 정부는 '한일조약으로 해결되었다'는 자세를 바꾸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14년 5월 제12회 아시아 연대회의가 도쿄에서 개최되었다. TF회의에서 축적해 온 '법적 해결안'을 가지고 아시아 연대회의에 참가한 중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8개국 지원자들과 함께 회의를 거듭해 「일본 정부에 대한 제언」(이후 '제언')으로 정리했다.

「제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정부는 1. 위안소의 입안.설치.관리.통제를 했던 것, 2. 여성들이 의사에 반한 성노예가 되어 강제적인 상황 하에 처했던 것, 3. 여성들의 피해는 심각하며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 4. 당시의 국내법.국제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였던 사실에 대해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4가지의 피해회복 조치를 요구한다. 이는 1. 명확하고 공식적인 사죄, 2. 사죄 증거로서의 배상, 3. 진상규명, 4. 재발방지와 교육이다.

「제언」은 아시아 연대회의 종료 후인 2014년 6월 2일 각국 피해자와 지원자들이 함께 원내집회를 하고나서, 「고노담화」 이후 시민들의 손으로 발견한 관련자료 529점과 같이 직접 내각부에 전달되었다. 그로부터 1년 동안 일본 정부에서는 끝내 어떤 대답도 없었고 정부의 움직임도 볼 수 없었다. 그리고 전후 70년을 맞이한 2015년 5월 21일부터 한국 서울에서 제13회 아시아 연대회의가 개최되었다. 제13회 아시아 연대회의의 주제는 "전후 70년, 우리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로 간다"였다.

제13회 아시아 연대회의에 참가한 피해자는 필리핀에서 롤라 에스테리타 디(Estelita Dy)와 롤라 피덴샤 데이비드(Fidencia David) 2명과 중국에 사시는 하상숙 할머니, 한국의 김복동 할머니, 길원옥 할머니, 이용수 할머니를 합해 6명이었다. 일본에서도 전국행동 멤버들 45명이 참가했다.

정대협 윤미향 대표는 아시아 연대회의에서 「제언」의 실현을 위한 국제 활동과 UN차원에서의 일본군'위안부' 제도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 나아가 국제 여론의 환기를 제안하였다. 또한 아베정권 이후 멈출 줄 모르는 우익들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격과 협박에 굴복하거나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시민단체나 문화예술계 활동가들과 연대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알리기 위한 행동을 제안했다.

특별 보고를 했던 전국행동 양징자 대표도 역시 「제언」의 함의를 다시 한 번 설명했다. 그리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안은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해결'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전제되어야 할 것은 일본 정부가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또 2015년 4월 말에 아베 수상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인신매매'의 희생자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고 발언한 일이 다양한 견지에서 비판되었다. 아베 수상이 '인신매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업자나 돈을 받고 판 친족에게 책임을 전가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규제하지 않았던 국가의 책임도 당연히 물을 수 있다. 더구나 일본군'위안부' 제도는 국가가 지휘하고 통제했던 일이고, 아베 수상이 '인신매매'를 인정한다는 것은 국제법 위반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틀 동안의 토의를 거쳐 5월 23일 오후, 전체 의견으로 제13회 아시아 연대회의의 결의 및 활동계획을 채택했다.

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일본정부에 대한 요구> 「일본정부에 대한 제언」을 즉각 이행하고, 전후 70년을 기해 나올 예정인 「아베담화」에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반성과 사죄를 서술할 것.

DBpia × 아카루트

<피해국 정부에 대해서> 외교적.사법적 조치를 통한 피해자의 인권회복.

<국제사회에 대한 요구>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은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할 것, 일본군 '위안부' 의회 결의를 제출한 각국에 결의 요구사항 이행을 촉구할 것, UN인권기관은 지금까지 일본 정부에 해 왔던 권고의 이행을 요구할 것, 중대한 인권유린 범죄인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UN차원에서의 진상조사를 할 것.

마지막에는 우리의 결의로 국제 연대를 통한 다양한 해결요구 행동의 실시와 각국 피해자 지원 강화, 각국 역사 교과서에 일본군'위안부' 서술을 위한 행동이 결의되었다.

폐회식에서는 나무로 만든 메모판에 각각의 그룹이 써놓은 메시지를 차례대로 읽으면서 무대 위의 조형물에 붙였다. 마지막 메시지를 붙이자 조형물은 나비 모양으로 완성되었다.

참가했던 사람들 모두가 무대 위에서 할머니들을 둘러싸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논의를 구체화하여 행동 목표를 향해갈 한명 한명의 마음이 웃는 얼굴로 피어났다. 폐회식 마지막에 김복동 할머니가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사회자의 "짧게"라는 말에 "그렇게는 안 돼"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지금도 세계에는 옛날 우리와 같은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요. 내 손을 쥐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그 분들을 위해, 나는 나팔을 불게요. 그러면 나비가 가득 모이죠. 한명이 천원, 10명이면 만원, 100명이면 10만원, 10만원으로 한 사람이 한 달 지낼 수 있어요."

2012년 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에 '나비기금'을 창설한 할머니는 기금을 모아 콩고의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 군인의 성폭력으로 지금도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투쟁의 세월은 피해자에게 자기 자신을 되찾는 피해회복의 길이기도 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아직 이름을 밝히지 않고 피해 회복조차 할 수 없는 피해자가 아시아의 각국에, 그리고 일본에도 존재한다. 일본 정부의 응답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작업도 서둘러야한다. 힘든 길이지만 우리에게는 전시성폭력의 연쇄를 끊어내는 운동의 선두에 선 선배들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